

【전쟁으로부터 80년의 평화의 목소리】

-전후 80주년 시민 담화-

머리말

지금 이곳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내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1945년 일본에서 끝난 전쟁으로부터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올해,
우리가 던지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이 담화를 시작하려 한다

국내외에서 보내온 개인과 단체의 목소리.
그것을 지금 이곳에 전함으로써,
각자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결정할 차례다.
당신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담화

전쟁으로부터 80년의 평화의 목소리,
수많은 사람과 단체가 모아 보낸,
전후 80년, 시민 담화.

전후 80년이 된 올해,
우리가 던지고 싶은 물음이 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이곳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내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202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 행위가 끝난 뒤로,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날마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정의와 부정의로 갈라진다.

겹겹이 쌓인 시간 위에 쓰여진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언제나 무언가를 나누어 왔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둘, 셋, 그 이상의 의견과 해석을 붙여왔다.
누군가에게는 좋아 보이는 것,
큰 목소리를 가진 것,
한쪽에서는 옳아 보이는 것.

알고 보니,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계속 선택해 왔다.

전후 80주년이된 올해 모인, 평화를 마라는 목소리들을
우리는 이제까지처럼 나누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목소리를 모으는 선택을 했지만,
그 위에 우리의 의견이나 해석을 더하는 일은 멈추려 한다.

모여든 목소리와 표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나 단체에게는 곧 정답일 수 있다.
모여든 목소리와 표현 하나하나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증오를 부추기거나,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를 사회에 내놓음으로써,
“지금 이곳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내가,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잇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물으려 한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자신과 타인 사이에 평화를 대화로 세우는 대화로 이어진다고 믿기에.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미래에 전해야 한다.
과거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들을
언젠가 해석을 동반하며 ‘역사’가 된다.
80년 전의 역사를,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전하고 있다.

오늘이라는 날도 언젠가 역사가 될 것이다.
비슷한 삶이 무늬가 되풀이된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의 '조상'이 되어,
자연스럽게 역사를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담화에서 우리가 맡은 그 역할은,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 바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스스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여기에 모인 많은 평화의 목소리를 읽으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는지.
자기만의 생각을 넘어,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며.
다름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다름이 결코 증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나라에 살든,
과거를 살아낸 모든 이들에게
"살아남아 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맺음말

8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내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에 살아가는 누구나 훌륭하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여기에 모인 목소리를 전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생각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음 순간으로. 내일로. 내년으로. 그리고 그 너머로.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 이곳에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자신에게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대화'라는 의지로 바꾸어,
내일을 만들어 가는 힘으로 삼아,
다음 80년의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전쟁으로부터 80년의 평화의 목소리,
수많은 사람과 단체가 모아 보낸,
전후 80년, 시민 담화.

2025년 8월 1일

80년 담화에 동참해 준 목소리와 함께

전쟁으로부터 80년의 평화의 소리,
많은 사람과 단체로부터 모은,
전후 80년, 시민 대화.

2025년 8월 1일

80년 대화에게 동의해 준 목소리와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

-동아시아 평화대사 프로젝트 담화-

지금 이곳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동아시아 평화대사 프로젝트 구성원이 이 지역의 평화를 바랄 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주어.
정치 담화나 국가, 정치인, 일상 속 대화에서 말해지는 ‘나’, ‘우리’.
혹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주체들.
그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인가, 짙어진 책임인가, 국가인가.
당신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누구를 위해 말하고 있는가.

공감.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
아픔을 동반한 기억에 대한 정면 부정.
역사가 된 사건이나 말로 전해지는 기억 속에 존재하는 애매한 것들.
그 애매함을 약점으로 삼아 타인의 아픔을 공격하는 행위는
공감 능력과 상상력의 결여다.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 하지 않을 일이라면, 대상이 누구든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 다가서는 것을 소중히 하자.
반드시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마음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국가도 개인도, 그것을 가져야 한다.

평등성.
전후 8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각 나라에 사는 우리는 서로 다른 역사 속을 살아왔다.
우리가 모든 역사와 사회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평등성이 있다.
어느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위인지, 아래인지.
발전 정도나 사회 체제로 우열을 나누고, 대화의 어긋남을 만드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각 나라에 살아가는 개인이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기준으로 서로의 사회를 바라보자.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대화를 시작하자.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 것.
역사와 정치 문제에 마주하는 우리.
‘어색하다’, ‘정답이 없을 것 같아 말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이제 그만두자.
서로가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여기에 없는 것.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때가, 전후 80년이 지난 지금이다.
서로 공감하며,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자.
각자가 가진 답은 어떤 문제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서로의 답을 맞출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 것이다.

잃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앞으로 흐를 시간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당사자와 기억,
기억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우리는 많이 잃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속 이어가고,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은 받아들여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가운데,
역사와 과거, 그리고 동아시아의 이웃들은
당연히 존재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자신을 기점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책임.
우리는 모두 과거의 연장선 위에 살아가고 있다.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
80년 전, 이 나라와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
그것을 잊지 않고 동아시아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발전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세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책임이 있을까.
적어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물어야 한다.
도달하는 책임은 사람마다 다를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고, 물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 책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사회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모두가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전하고, 물음을 던지고 싶다.
지금 이곳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어, 공감, 평등성, 책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자.
사라져 가는 과거를 받아들이자.
생각하고, 물음을 계속 이어가자.

전후 **80년**이 된 올해 모인,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와 우리의 활동.
그곳에서 엮여 나온 이 담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전함으로써,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와 ‘평화’, 그리고 ‘행동’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세운다는 굳센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2025년 8월 1일

동아시아 평화대사 프로젝트 일동